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10, pp. 48-55,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0.048

수출다변화를 통한 G2 리스크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최돈승[1], 고경일[2*]
[1]안동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2]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A Study on G2 Risk and Export Diversification: Focusing on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Don-Seung Choi[1], Kyung-Il Khoe[2*]
[1]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Andong National University
[2]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nd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 미-중 무역분쟁, G2 리스크, 수출다변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Abstract This study argued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in the uncertain world global trade environment with G2(US-China) risk. In SMEs export support system, The authorities needs stronger control tower to promote consistent export support policies. There is also another problem of repetitious work that export support system has been operated by individual projec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irst, the authorities set clearly organization to control various export support policies. Second, export support system needs the efficient operation based on long term road map. Third, the authorities defines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upporting units, and enhances cooperation between the different organizations. Finally, the system should arrang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and feedback system to build the desirable export support system.

Key Words : US-China Trade War, G2 Risk, Export Diversification, SMEs, Export Support Syste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8 research fund of Korea Sanhak Founda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ng-Il Khoe(kyungil@bu.ac.kr)
Received August 5, 2019 Revised September 26,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2017년 8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통상법 201조(수입품의 증가로 미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의거한 중국의 부당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였고 그 후 2018년 3월 중국산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부과를 지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돈육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여 맞대응을 하였다. 이후 미국의 관세부과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순서로 양국의 무역갈등은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2019년 6월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협상을 통해 사실상 미-중 무역분쟁(US-China trade war)[1]은 '휴전' 상태로 돌입했지만 추후 협의과정에 의해 연내에 종결될 것인지 장기화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1].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국 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 관세부과조치가 있었던 2018년에는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일자리 축소의 원인으로 이민자 혹은 외국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공약사항이었던 미국우선주의정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둘째,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술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품목 중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세계경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현재 두 국가 간 무역갈등은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무역갈등은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관세라는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앞서 살펴본 미-중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 가지로 축약하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이 조기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두 국가 사이의 경쟁으로 촉발된 긴장관계는 향후 지속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과 정부는 향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2]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G2 리스크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 즉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이며 전 세계무역의 약 22.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G2에 대한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對미 수출비중은 12.1%, 對중 수출비중은 26.8%,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G2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38.9%로 약 40%에 달한다[3].

따라서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두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중 무역분쟁이 2019년 상반기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4], 미국의 수입 측면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은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對한국 수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요의 감소 등을 유발하여 신흥시장을 비롯한 한국의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 발생 초기에 미국은 불공정 무역을 근거로 관세부과라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향후 세계경제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지속될 경우 이번 미-중 무역분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두 국가 사이의 긴장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G2 리스크'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G2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는커녕 중요 시장에만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조차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수출지원제도가 매우 중요하다[2,5,6].

3. 선행연구

3.1 수출다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수출다변화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투자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2)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투자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세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수출품목의 고도화, 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한다. 넷째, 수출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정책세부내용이 각각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국가 간 교류를 강화하여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의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먼저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지역적인 다각화(geographic diversification)가 기업의 성과변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대부분 주장하고 있다[7-9].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시장에 다각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소수의 특정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10,11].

한편 수출품목의 다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업단위가 아닌 국가나 산업단위의 성과변수와의 관계를 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대국 혹은 선진국일수록 상품의 다양성이 높다고 주장한다[12-14]. 또한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15,16].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대체로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수출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 연구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17-19].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정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수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수출지원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다[20-22].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의 지원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수출지원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3.3 선행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수출다변화에 대한 선행연구[7-16]에 의하면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방법, 시장여건 등에 따라 효과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기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수출다변화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2가지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수출품목의 다변화

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무역·투자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정책상세내용. (2019).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4.do?brf_code_v=4#header

를 위해서 간접적으로는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R&D 투자는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3]. 그러므로 장기적인 수출지원방안의 하나로 R&D 활동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D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품질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4.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현황

이하에서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살펴본다.

4.1.1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총 80여개가 있으며 그중에서 수출지원정책은 총 8개이다. Table 1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개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로드맵이 없으며 어느 조직이 각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어떤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여 수출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port Support Programs

	Project Title	Description
1	Woman Specialized Product Foreign Market Entry One-Stop Support	Support Marketing activity like as overseas market research, buyer discovery, trade education for foreign market expansion of female-owned companies
2	Export Promising SMEs Designation	Build export capabilities by supporting export marketing programs of SMEs with high sales volume or high employment growth rate
3	Large- and Mid(small)-size Enterprises Joint Overseas Expansion	Support SMEs' market expansion by using global network and resource of large companies
4	Achievement of Foreign Standard Certification Support	Support achievement expenses of standard certification such as CE, CFDA, NRTL, which host countries require
5	Export Incubator	Install and operate export incubators located in major trading area in order to support SMEs' early settlement and export competitiveness enhancement
6	E-commerce Export Market Entry	Support global e-commerce market entry of SMEs
7	Export Voucher	Support export marketing and activities of hidden champions
8	Export Consortium	Support joint overseas market development through establishing consortium of SMEs in similar industry

Source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omepage(2019.07), https://www.mss.go.kr/

4.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주 업무이므로 2012년 12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및 컨설팅, 수출마케팅, 인력지원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2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출지원제도 중 수출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만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Export Support Programs

	Project Title	Description
1	Export Marketing Program	Sourcing, Globalization of Domestic Company, Export Voucher, Export Incubator, On-line Export Support System, Local SMEs Export Marketing, E-commerce Export Market Entry, Overseas Branching
2	Overseas Industrial Collaboration	Identify new collaboration opportunities and innovative business ideas through overseas invest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3	Trade Adjustment Support	Support firms whose sales, production, and profits decrease through loan and consulting because of increased imports

Source :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Homepage(2019.07), http://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항목, 수출마케팅(Export Marketing Program), 해외산업협력지원(Overseas Industrial Collaboration), 무역조정지원사업(Trade Adjustment Suppor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중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으로 사업의 중복으로 보기보다는 조직 간 위계질서에 의해 간접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2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다. 2008년 지원기관 사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시행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원화되었지만 이후 다시 분산되었다[24]. 대부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개별적인 사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수출지원정책이 여러 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고 정책 간 중복이 발생하기 쉬워 행정적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수출지원정책의 사업 간 유기적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부분의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수출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5.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

5.1 미-중 무역분쟁 관련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중점 방향

중소기업중앙회가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5]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춘 중소기업은 그 대응방안으로 거래처 다각화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책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얻었다.

그러므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아닌 잠재적 위험성도 포괄하는 G2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외에도 간접적으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품목의 다변화도 포괄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5.2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

5.2.1 컨트롤 타워의 설정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다양한 정책이 여러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정부의 수출지원제도가 매우 절실하므로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수출지원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5.2.2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

대부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개별적인 사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사업의 수행주체가 각각 다르다보니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 간 중복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인력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2.3 정부조직 간 협력 강화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어느 한 조직이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다. 특

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회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전환의 패러다임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소통 등의 노력을 통해 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6].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정부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해야 하겠지만 수출지원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담하고, 정치·외교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외교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주도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만 사업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기업의 역량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산하기구가 되어야 한다.

5.2.4 수출지원성과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평가기준을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출지원제도의 정책 혹은 주체별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조금씩 달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다.[3]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주도를 통한 성장이 중요한 만큼 평가기준이 달라야 한다. 둘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양적인 평가지표를 토대로 수출지원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상황의 변화 혹은 추세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지원성과의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상황이 변하여 이전의 목표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탄력적이면서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무역·투자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정책상세내용. (2019).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4.do?brf_code_v=4#header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어 G2 리스크가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전략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수출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전략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전략 로드맵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개혁을 위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1] D. Burns, J. Ekblom & A. Shalal (2019.08.10.). *Timeline: Key dates in the U.S.-China trade war*.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hina-timeline/timeline-key-dates-in-the-us-china-trade-war-idUSKCN1UZ24U

[2] K. Hwang. (2019). Phenomenological Analysis for the Employment Policy and Creating Jobs: Understan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abors and Techn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9-39.
DOI : 10.14400/JDC.2019.17.4.029

[3]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9). *The Effect of US·China Trade War on Export*, Trade Focus, 24, Seoul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4]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9). 2019 Import and Export First Half Trends and Second Half Forecast. Trade Focus, 24, Seoul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5] J. H. Lee & T. H. Kim. (2018).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export environ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225-230.
DOI : 10.22156/CS4SMB.2018.8.4.225

[6] S. G. Kim & B. H. Hyun. (2019). Analysis of SMEs internationalization theory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4)*, 88-99.
DOI : 10.22156/CS4SMB.2019.9.4.088

[7] J. Larimo. (2006). Different types of exporting SM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xport performance.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17*, 17-62.
DOI : 10.1016/S1474-7979(06)17001-5

[8] L. C. Leonidou, C. S. Katsikeas & D. N. Coudounaris. (2010). Five decades of business research into exporting: a bibliographic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6(1)*, 78-91.
DOI : 10.1016/j.intman.2009.06.001

[9] J. Cieślik, R. Kaciak & D. H. B. Welsh. (2012). The impact of geographic diversification on export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10*, 70-93.
DOI : 10.1007/s10843-012-0084-7

[10] D. Crick, S. Chaudhry & S. Batstone. (2000). Revisiting the concentration versus spreading debate as a successful export growth strategy: the case of UK SMEs exporting agricultural-related product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2(1), 49-67.
DOI : 10.1080/089856200283081

[11] E. S. Katsikea, M. Theodosiou. R. E Morgan & N. Papavassiliou. (2005). Export market expansion strategies of direct-selling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mplications for export sales management activ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3(2)*, 57-92.
DOI : 10.1509/jimk.13.2.57.64856

[12] E. Helpman & P. Krugman. (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MIT Press, Cambredge, MA.

[13] R. Feenstra. (1994). New product varieties and the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pric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1)*, 157-177.

[14] D. Hummels, J. Peter & P. Klenow. (2005). The variety and quality of a nation's expor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5(3)*, 704-715.
DOI : 10.1257/0002828054201396

[15] D. Herzer & F. Nowak-Lehnmann. (2006). What does export diversification do for growth? An econometric analysis. *Applied Economics*, *38*, 1825-1838.
DOI : 10.1080/00036840500426983

[16] M. Heddad, J. J. Lim, C. Pancaro & C. Saborowski. (2010). Trade Openness reduces growth volatility when countries are well diversified.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6(2)*, 765-790
DOI : 10.1111/caje.12031

[17] E. Fischer & A. R. Reuber. (2003). Targeting export support to SMEs: Owners' International Experience as a Segmentation Basis. *Small Business Economics*, *20(1)*, 69-82.
DOI : 10.1023/A.1020296405149

[18] J. Audet & E. St-Jean. (2007).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public support services by SME owners: Evidence from a periphery region of Canada.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2(2)*, 165-180.
DOI : 10.1257/0002828054201396

[19] H. Kang.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utilization of export support programs for SMEs: Focused on Daegu and Gyeongbuk Area. *Korean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28(4)*, 363-382.

[20] C. Mason & R. Brown. (2013). Creating good public policy to support high-growth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40(2)*, 211-225.
DOI : 10.1257/0002828054201396

[21] M. Ciszewska-Minarič. (2018). Export intensity, geographic diversification and the role of public support: The evidence from old and new Europe SMEs. *Entrepreneurial Business and Economic Review, 6(2),* 45-69.
DOI : 10.15678/EBER.2018.060203

[22] J. H. Choi. (2018).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export support policy for the SME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114-123.

[23] K. I.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R&D investment and a firm's performa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213-217.
DOI : 10.22156/CS4SMB.2018.8.4.213

[24] K. S. Park & J. S. Ko. (2018).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xport support system of Korea SME.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Review, 79,* 209-228.

[25] Korea Federation of SMEs (2018). *The effects analysis report of US-China trade war on SMEs.* Seoul : Korea Federation of SMEs.

[26] S. Y. Lee, K. H. Cho & K. K. Park. (2019).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35-42.
DOI : 10.14400/JDC.2019.17.6.035

최 돈 승(Don-Seung Choi) [정회원]

· 2008년 2월 :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 2011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5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7년 2월 ~ 현재 : 안동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영, 국제금융, 중소기업, 무역
· E-Mail : dschoi@anu.ac.kr

고 경 일(Kyung-Il Khoe) [정회원]

· 1993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5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3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3년 1월 ~ 2004년 2월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실 연구원
· 200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영, 국제금융, ICT기업, 무역
· E-Mail : kyungil@bu.ac.kr